

제주도 지질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

전용문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도의 지질자원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함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화산학적 측면에서 370여개의 크고 작은 소화산체와 170여개의 용암동굴을 비롯하여, 곶자왈, 폭포, 다양한 용암지형 등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지질다양성을 바탕으로 제주도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은바 있다. 제주도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3개의 유네스코 공식프로그램을 모두 보유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지질자원이 최고라는 표면으로 단위면적당 가장 화산체의 숫자가 많다거나, 화산섬 중에서 용암동굴의 숫자가 가장 많다는 등의 기네스북 수준으로 제주도의 가치를 언급해 오고 있다. 제주도의 자연과학적인 가치를 기네스북 수준의 숫자에 많고 적음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유네스코 공식 3개의 브랜드로 지정되어 그 권위나 가치에서 의심에 여지가 없다는 표현으로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지질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1925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많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육지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제주도의 가치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 지질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들 중에서 특히 수성화산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 화산학 백과사전에 소개될 정도로 널리 인용되고 있으며, 많은 화산전문가들이 제주도를 방문하고 같이 연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의 지질유산에 대한 연구중에서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지질도가 제주도 동부에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며, 제주도 형성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심부 시추등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연구는 2-3최소 3년 이상 장기 간에 걸쳐 수행되어야 할 연구과제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주도 형성과 지질가치 규명을 위해 수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최근에 한라산 중산간을 중심으로 광대역 지진계 5대가 설치되었다. 광대역 지진계 설치를 통해 제주도와 인근 해상의 정밀한 지진활동 관측과 지하 마그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전망이다. 제주도에서 화산활동이 불과 1,000년전에 발생하였음을 고려하면 제주도 지하에 마그마 존재 여부와 활동은 앞으로의 제주도 화산활동 징후를 관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 연구는 백두산과 같이 지하 마그마 구조와 위치 크기 등을 짐작할 수 있게 되어 제주도 화산활동의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연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의 자연과 지질유산은 한정된 자원이다. 특히, 제주도의 오름은 그 수가 한정되어 있고, 제주도 지표에 무수히 펼쳐진 용암대지와 곶자왈, 모래조차도 유한한 자원

이다. 독도와 같은 경우 학술조사용이라 하더라도 암석의 채취와 반출에서 그 양을 일일이 따질 만큼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주도는 울릉도에 비해 비교적 큰 섬이지만 제주도의 자연자원 또한 한정되어 있다. 특히 최근 제주도 모래 사구 자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모래자원의 경우 특히 훼손에 취약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유한한 자원이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제주도가 가진 독특한 자연자원과 이국적인 문화를 보기 위해 돈을 들여 방문하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가 단기간에 편리와 이익을 위해 자연자원들을 무분별하게 사용어버린다면,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이용해야 할 자연자원들이 우리세대에 사라질 수도 있다. 예를들어 1960년대 5.16.도로를 만들기 위해 도로변 오름의 흙과 암석을 채석하면서 오름이 사라지기도 했고, 각종 개발과 건설을 위한 재료들로 오름과 꽃자왈이 파헤쳐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제주의 오름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동굴은 쓰레기와 메워진다면 누가 제주도를 관광하기 위해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의 자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이 두고두고 보살피고 잘 관리할수록 그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